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탈원전으로 국민이 손해봤다” 탈원전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 원고모집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탈원전으로 인해 이달 10월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4인 기준) 1,050원씩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기요금 인상은 망국적 탈원전 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대한민국의 에너지 100년 대계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한번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원자력 정책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함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광고와 한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탈원전해도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탈원전으로 인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피땀흘려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대한민국의 에너지 100년 대계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모집대상 및 기간

○ 대상: 전기료를 고지 받는 개인 및 법인 ○ 모집기간: 1,050명에 도달할 때까지(선착순)

■ 접수방법

1. 한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hanbyun.or.kr>
2. 이메일 접수: hanbyun@hanbyun.or.kr
3. 우편 접수: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 추가문의: 02-599-4434

■ 구비서류

1. 전기료 고지 자료(10월분 또는 11월분)
2. 아래 내용이 기재된 서류(양식은 한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1) 이름 (2) 주소 (3) 연락처
 - (4) "소송위임장, 당사자선정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의 제장에 관한 권한을 한번 및 그 회원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문구

| 주관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번) / 원자력 정책연대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2021. 10.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번)
회장 이재원